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Stress-coping Styles on Depression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양심영*, 이지영*, 이주연**

충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세계사이버대학교 아동보육학과**

Sim-Young Yang(simyg_y@hanmail.net)*, Ji-Young Rhee(jiyoung3213@empas.com)*,
Ju-Yeon Lee(juyouns@hanmail.net)**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의 다문화가정 아동 총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은 부적관계,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신체적 증상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에는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또래 지지가 상호작용하여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스트레스 대처양식 | 우울 | 사회적 지지 |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regard of the impacts of stress-coping styles on depression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 nutshell,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ress-coping style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depression were found to be negatively related, while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Second, as for the effects of stress-coping styles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depression, the more passive and active stress-coping style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less their depression, behavior disorder, loss of interest, self-abasement and physical symptoms. Third, high levels of teachers' suppor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tress-coping styles and depression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is finding implies tha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perceive high levels of peer support, cope with stress better and thus reduce depression.

■ keyword : | Stress-coping Styles | Depression | Social Support |

1. 서론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결혼이민자가정, 외국인노동자 가정 등의 증가로 인하여 급격히 다인종·다문화(multiracial and multicultural)사회로 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1]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가정 및 혼인귀화자는 약 181,671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5.9%에 해당하며, 결혼이민자가정 등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도, 2007년 4만 4천명, 2008년에는 5만 8천명, 2009년 10만 8천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언어발달이 늦고, 자아체감의 혼란과 외모에 따른 왕따와 놀림 등으로 학교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2-4]. 김승권 등[5]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차별, 따돌림, 놀림의 이유가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별한 이유 없음'이 두 번째 원인으로 분석되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요인 또는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에 매우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놀림과 왕따를 경험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반응은 위축되어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반대로 폭력적이고 과잉행동을 보이고, 결국 학교에서 정서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학습결손과 차별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거나 방황하는 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4][6][7].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불안, 적대감과 같은 심리적 갈등은 결국 문화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8]. 실제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 분노감정은 신체화를 나타내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를 떠나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9][10].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은 가족에서 가져야 되는 안정감, 지지감 등의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모의 불화모습 등으로 인한 자신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12].

현대사회는 많은 갈등과 치열한 경쟁, 다양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요구하므로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다

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단일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아동기는 성인기와 달리 아직 성장 발달하는 과정이고, 또한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에 스트레스 대처에 필요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술들이 부족하다. 때문에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행동문제[13], 학교적응[14], 우울증[15]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대처행동에 의해 완충되어 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스트레스의 경험 유무보다 개인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대처행동에 더 설명력이 있음이 밝혀졌다[16][17]. 선행연구 결과 아동기 시기도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아동이 어떠한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가지고 있는냐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가정의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원은 아동에게 심리적 부적응인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부정적 심리적 건강상태인 우울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인 또래와 교사의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서 아동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우울, 교사 지지, 또래 지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교사 지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4)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 지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I.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 대처양식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대처양식이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으로[18][19] 스트레스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성장의 촉진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능동적 대처, 수동적 대처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능동적 대처는 자아개념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외적 환경을 능동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성취와 독립을 추구하려는 행동을 의미하고, 수동적 대처는 외적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며 외적 조건과 상황에 순응 또는 타협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일을 해결하려 하여 성취동기와 자율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Moos와 Billing[17]의 연구결과 개인이 반복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사람은 무기력감을 경험하며 수동적인 대처행동이 증가되어 결국 자기저하와 우울상태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능동적인 대처 유형의 사람은 수동적 대처 유형에 비하여 우울의 수준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적극적인 대처양식은 스트레스 원이 심리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회피적 대처양식은 스트레스 원을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0]. 이장희와 이장호[21]의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는 기능적이나 정서중심의 소극적 대처는 우울한 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나며 그 기능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밝혔으며, 스트레스 대처와 우울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다[22][23]라고 하였다. 이에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과의 관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우울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은 전 연령층을 통해 자살증가세를 보여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학령기 아동의 자살은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력중심의 사회풍토로 인해 발생한 압력과 스트레스는 자살행동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이 점차 과열되면서 청소년들이 경험하였던 스트레스가 학령기아동에게 까지 하향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24][25].

아동기의 심리적 문제는 전 생애에 걸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경험하게 되면 당장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기 및 그 이후 성인기에든 계속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26][27]. 우울은 아동의 정서장애 및 행동문제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심리적 원인으로 자아존중감, 정서, 환경적응력, 건강상태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28].

따라서, 아동기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발생에 관여하는 요인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지닌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같은 가정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 요소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에 보호요인으로써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랑, 관심, 이해, 도움 등의 긍정적인 자원으로 학습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율성을 제공받는 것이다[29]. 또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개인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존

경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이끄는 정보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의된다[30].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원과 지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지원은 누구로부터 제공받는가에 대한 것으로 지지의 절대적인 양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31], 그러한 제공자를 가족, 교사, 또래로 제시하였다[32]. 학령기 아동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생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족이외의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또래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만족할수록, 학급 내에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학교생활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교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 지지적, 만족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38].

이상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환경 중 교사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인천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의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배포된 설문지는 총 120부이며 이 가운데 111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07부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조사대상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은 5학년이, 형제수는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가,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40~44세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4세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으로는 생산직이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 무직, 실직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족의 경제상황 정도는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국은 필리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베트남, 중국, 기타,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대화 시 한국어의 불편 정도는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화 시 주 언어는 한국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07

내용	구분	N(%)	
성별	남자	48(44.8)	
	여자	59(55.2)	
학년	4학년	22(20.5)	
	5학년	46(42.9)	
	6학년	32(36.6)	
형제수	1명	31(28.9)	
	2명	41(38.3)	
	3명 이상	28(32.8)	
부모학력	중졸이하	부 26(24.3)	모 17(16.0)
	고졸 및 중퇴	52(48.5)	67(62.6)
	대졸 및 중퇴	20(18.6)	23(21.4)
	대학원졸 이상	9(8.6)	-(-)
부모연령	34세 이하	부 19(17.8)	모 42(39.3)
	35~39	22(20.5)	20(18.7)
	40~44	37(34.6)	26(24.3)
	45~49	24(22.4)	19(17.7)
	50세 이상	5(4.7)	-(-)
부모직업	전문관리직	부 5(4.7)	모 -(-)
	사무직	5(4.7)	-(-)
	판매직	16(14.9)	9(8.4)
	생산직	76(71.0)	9(8.4)
	주부, 무직, 실직	5(4.7)	89(83.2)
경제상황	최상	-(-)	
	상	7(5.7)	
	중	49(45.8)	
	하	33(30.8)	
	최하	19(17.7)	
어머니 출신국	일본	9(4.7)	
	중국	22(20.6)	
	필리핀	32(29.9)	
	베트남	29(27.1)	
	기타	19(17.7)	
한국어대화 불편정도	아주 잘 된다	20(18.7)	
	보통이다	45(42.1)	
	대화가 잘 안된다	31(28.9)	
	전혀 안 된다	11(10.3)	
가장 많이 쓰는 언어	한국어	79(73.8)	
	영어	17(15.8)	
	어머니 출신국어	11(10.4)	

* 무응답치에 따라 사례수가 다름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경우 가족에서 가져야 되는 안정감, 지지감 등의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11][12], 선행연구 검토 결과 아동의 스트레스는 우울성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 요인인 사회적 환경인 교사와 또래와의 지지가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변수들을 측정하고자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Lazarus와 Folkman[39]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척도를 김정희[40]가 요인분석을 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정희[40]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를 적극적 대처로, 소망적 사고와 정서적 대처를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으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2)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41]이 개발한 소아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과 이영식[42]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안한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Beck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BDI)를 8-13세의 아동 연령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시점으로부터 지난 2주간의 자신의 기분상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각 항목에서 3개의 서술문 중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골라 표시하는 자기 보고식 우울 평정 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는 0-2점까지이고 부정문항은 역산 처리하며, 총 우울 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가능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척도는 우울정서 5문항, 행동장애 7문항, 흥미상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 생리적 증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며, 총점에 대한 Cronbach α 은 .88이었다.

3) 사회적 지지 척도

Dubow와 Ullman[30]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이명화[43]의 사회적지지 척도 15문항 가운데 교사의 지지, 또래의 지지 항목인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의 지지 신뢰도는 .80, 또래의 지지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44]의 검증절차 방법을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Baron과 Kenny[44]의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스트레스 대처양식, 우울, 또래 지지, 교사 지지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우울, 사회적

표 2. 상관관계

	소극적 대처	적극적 대처	우울 정서	행동 장애	흥미 상실	자기 비하	신체적 증상	교사지지	또래지지
소극적대처	1								
적극적대처	.470***	1							
우울 정서	-.476***	-.439***	1						
행동 장애	-.481***	-.457***	.137**	1					
흥미 상실	-.415***	-.408***	.129*	.454***	1				
자기 비하	-.319***	-.293**	.084	.405***	.491***	1			
신체적 증상	-.369***	-.337***	.140*	.409***	.430***	.444***	1		
교사 지지	.384***	.395***	-.211**	-.491***	-.406***	-.488***	-.465***	1	
또래 지지	.375***	.377***	-.333***	-.477***	-.410***	-.421***	-.434***	.200**	1

* p<.05, ** p<.01, *** p<.001

지지원인 또래, 교사 지지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은 탐색적 연구에서 가설검증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설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가 설에 사용되는 중요 변수들 간의 관계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45], 모든 분석에 앞서 요구되는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하위 영역인 소극적 대처와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정서($r=-.476, p<.001$), 행동장애($r=-.481, p<.001$), 흥미상실($r=-.415, p<.001$), 자기비하($r=-.319, p<.001$), 신체적 증상($r=-.369,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와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정서($r=-.439, p<.001$), 행동장애($r=-.457, p<.001$), 흥미상실($r=-.408, p<.001$), 자기비하($r=-.293, p<.01$), 신체적 증상($r=-.337,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하위영역인 소극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사지지($r=.384, p<.001$), 또래지지($r=.395,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

보면, 교사지지($r=.375, p<.001$), 또래지지($r=.377,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우울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사지지($r=-.211, p<.01$), 또래지지($r=-.333, p<.001$)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전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상관관계 계수가 0.8 보다 커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얻어진 상관관계의 수치는 .111~.48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우울정서($F=110.156, p<.001$), 행동장애($F=76.243, p<.001$), 흥미상실($F=42.035, p<.001$),

자기비하($F=58.168, p<.001$), 신체적 증상($F=65.66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B	β	R^2	ΔR^2	F
우울 정서	소극적 대처	-.267	-.245**	.231	.229	110.156***
	적극적 대처	-.373	-.318***			
행동 장애	소극적 대처	-.255	-.246**	.272	.270	76.243***
	적극적 대처	-.343	-.311***			
흥미 상실	소극적 대처	-.247	-.234**	.202	.200	42.035***
	적극적 대처	-.371	-.316***			
자기 비하	소극적 대처	-.211	-.221**	.236	.234	58.168***
	적극적 대처	-.300	-.301***			
신체 적 증상	소극적 대처	-.212	-.222**	.247	.245	65.666***
	적극적 대처	-.301	-.302***			

** $p<.01$, *** $p<.001$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대처($\beta=-.245, p<.01$)와 적극적 대처($\beta=-.318, p<.001$)양식이 우울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2.9%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정서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대처($\beta=-.246, p<.01$)와 적극적 대처($\beta=-.311, p<.001$)양식이 행동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2.9%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행동장애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장애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대처($\beta=-.234, p<.01$)와 적극적 대처($\beta=-.316, p<.001$)양식이 흥미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2.9%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흥미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흥미상실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대처($\beta=-.222, p<.01$)와 적극적 대처($\beta=-.301, p<.001$)양식이 자기비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2.9%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자기비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비하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대처($\beta=-.222, p<.01$)와 적극적 대처($\beta=-.302, p<.001$)양식이 신체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2.9%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신체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신체적 증상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3.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매개효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의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 매개효과

단계	독립/매개 변인	종속 변인	B	β	F	R^2
1단계	스트레스 대처	교사 지지	-.465	-.491***	16.296***	.305
2단계	스트레스 대처	우울	-.458	-.486***	22.126***	.308
3단계	스트레스 대처	우울	-.211	-.233*	16.914***	.315
	교사지지	우울	-.502	-.532**		

* p<.05, ** p<.01, *** p<.001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에 대한 관계에서 교사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beta=-.491, p<.001$)이 우울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beta=-.486, p<.001$)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beta=-.233, p<.05$), 교사의 지지($\beta=-.532, p<.01$)가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사의 지지 변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Baron과 Kenny[44]는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완전매개,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도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부분매개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사 지지가 부분매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대처수준을 증진시켜 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매개효과 검증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Z값이 1.96보다 크면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하였다[44]. 본 모형의 Z값은 2.32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4.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지지의 매개효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에 대한 관계에서 또래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beta=-.399, p<.001$)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beta=-.491, p<.001$) 변수가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지지 매개효과

단계	독립/매개 변인	종속 변인	B	β	F	R^2
1단계	스트레스 대처	또래 지지	-.310	-.399***	14.637***	.239
2단계	스트레스 대처	우울	-.433	-.491***	16.836***	.260
3단계	스트레스 대처	우울	-.518	-.559***	16.080***	.313
	또래지지	우울	-.527	-.589***		

* p<.05, ** p<.01, *** p<.001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beta=-.559, p<.001$), 또래의 지지($\beta=-.589, p<.001$) 변수가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또래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Baron과 Kenny[44]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에는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또래지지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래의 지지가 부분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대처수준을 증진시켜 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매개효과 검증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Z값이 1.96보다 크면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하였다[44]는데, 본 모형의 Z값은 2.14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의 다문화가정 아동 총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우울,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모두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신체적 증상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극적 대처와 적극적 대처 양식과 교사지지, 또래지지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으며, 교사와 또래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문제지향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24][2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신체적 증상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가운데 문제중심적이며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대처양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지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지향적 대처가 우울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48]와도 일치하며, 적극적인 대처인 문제지향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소극적인 대처인 소망적 대처, 정서 완화적 대처가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49][50]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에는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교사 지지가 상호작용하여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대처수준을 증진시켜 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에는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또래 지지가 상호작용하여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대처수준을 증진시켜 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친구, 가족이나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능력이 높다는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40][51-53].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다문화가족 정책의 요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발표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글로벌 코리아”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네 가지의 목표인 첫째,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둘째, 다문화가족자녀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 셋째,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넷째,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 방향은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이다.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별 사회통합지원체계에서 초기사회적응지원에서 한국문화이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에게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양한 문화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스트레스 대처양

식이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볼 때, 다문화 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인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태체계적 접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요인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표집이 아니고 인천,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표본수가 작아서 연구 결과를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전국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만이 아닌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간의 비교를 통해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동과 부모의 환경적인 변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다양한 개인 환경 변인의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단일문화 가정의 아동에 비해 다양한 스트레스원을 내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부정적 정신건강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교사 및 또래의 지지가 매개역할 관계를 규명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교사와 또래의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행정안전부, 2010년 외국계주민 현황조사, 행정안전부, 2010.
- [2] 서현, 이승은,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4호, pp.25-47, 2007.
- [3]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 [4] 오성배,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제32권, 제3호, p.61-83, 2005.
- [5] 김승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6] 안효자, “일개 시 농어촌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7권, 제4호, pp.383-391, 2008.
- [7] 안효자, 조성식, 조원탁, “일본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중·고등학생의 일본 관련 역사교육 경험”, 한국지역사회학회, 제19권, 제3호, pp.47-75, 2011.
-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9] 정문자, 박진아,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2호, pp.273-295, 2007.
- [10] 오성배,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제32권, 제3호, pp.61-83, 2005.
- [11] 김교정, 정규석, “다문화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1호, pp.273-285, 2008.
- [12] G. Liu, G. W. Ladd, R. Menia, and A. Padilla,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 Development, Vol.67, No.3, pp.1103-1108, 2011.
- [13] 이옥주,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제17권, 제3호, pp.77-85, 2003.
- [14] R. T. Rowleson and R. D. Felner,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Personal SocPsychol*, Vol.55, No.3, pp.432-444, 1988.
- [15] 박희석, 오상우, 손정락,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역기능적 태도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12권, 제2호, pp.179-196, 1993.
- [16] H. Band and D. H. Weisz,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Vol.56, pp.438-447, 1988.
- [17] R. H. Moos and A. G. Billing,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b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6, pp.877-891, 1984.
- [18] R. S. Lazarus, "An analysis coping a middle-aged commun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21, No.9, pp.219-239, 1981.
- [19] M. Billings,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 :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0, pp.277-290, 1981.
- [20] C. Holahan and R. H. Moos, "Life stressors, resistance factors, and psychological health: An extension of the stress-resistance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pp.909-917, 1985.
- [21] 김정희, 이장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과학 연구, 제7권, pp.127-138, 1985.
- [22] 임인순, *중학생의 생활스트레스 경험과 대처방식이 우울, 무망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윤지혜, *낙관성이 우울과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와 대처양식을 매개변인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4] Y. J. Lee,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suicidal ideators for children : Problem behaviors, selfesteem, social skill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5, No.1, pp.163-175, 2004.
- [25] 김미한, "명상 캠프 프로그램이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338-348, 2012.
- [26] A. Mazza, "Effect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well-being: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16, pp.201-228, 2008.
- [27] K. Rao, C. Booth, L. Rose-Krasnor, and R. Mills,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In S. Shulman(Ed.), *Human development: Vol.7, Close relationships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pp.63-94).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95.
- [28] 이주연, 정현희, "인지상태와 아동의 우울불안간의 관계", 인지행동치료, 제9권, 제2호, pp.49-63, 2010.
- [29] 문은식,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제26권, 제1호, pp.147-162, 2005.
- [30]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No.5, pp.300-404, 1976.
- [31] P. A. Thoits,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a reform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8, pp.174-187, 1983.
- [32] E. F. Dubow and D. G. Ulman, "Assessing

-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18, pp.52-64, 1989.
- [33] 고유미,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외국인 어머니 가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4] 박은혜,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5] 서정혜,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6] 이영주, *다문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37] 전푸르나,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8] 홍정미,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39] R. S. Lazarus and S. Folkman,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A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8, No.1, pp.150-170, 1985.
- [40] 김정희,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41] M. Kovacs, "Ration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m," *Acta Paedapsychiatrica*, Vol.45, pp.112-126, 1981.
- [42] 조수철, 이영식,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Vol.29, No.4, pp.943-955, 1990.
- [43] 김명숙,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4] R. M. Baron and D. A. Kenney, "The moder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Vol.51, pp.1173-1182, 1986.
- [45] J. Cohen and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ing, 1988.
- [46] 김남희,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47] 김혜정, *낙관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48] 최덕희,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대처의 통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49] 안은미,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50] 이지애,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51] 정운정, *결혼이민자 가정의 특성과 아동들의 학교적응*,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52] 정현영,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53] 이지영, 이주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제10권, 제2호, 2012.

저 자 소 개

양 심 영(Sim-Young Yang)

정회원



- 198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8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1999년 2월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사회복지학박사)
 - 2002년 3월 ~ 2012년 현재 :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가족복지

이 지 영(Ji-Young Rhee)

정회원



- 1996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 철학과(문학사)
 - 2004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석사)
 - 201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2010년 9월 ~ 2012년 현재 :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아동복지, 아동상담, 아동심리치료

이 주 연(Ju-Yeon Lee)

정회원



- 1998년 2월 :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가정학사)
 - 2001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가정학석사)
 - 2001년 9월 ~ 200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2010년 9월 ~ 2012년 현재 : 세계사이버대학교 아동보육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복지, 아동상담, 치료놀이